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여신금융협회
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

보도	2023. 9. 26.(화) 16:00 이후	배포	2023. 9. 26.(화) 09:00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	책임자	국 장	이호진	(02-3145-8810)
		담당자	팀 장	임연하	(02-3145-8800)
	여신금융협회 금융부	책임자	본부장	이태운	(02-2011-0710)
		담당자	부 장	백승범	(02-2011-0619)

「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」 출범식 개최

9개 캐피탈사-자산운용회사 펀드 설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- ◆ 여전업권은 「PF 정상화 지원 펀드*」를 구성하여 PF사업장 특성에 따라 **사업부지 인수, 채권매입, 사업자금 지원** 등을 통해 PF사업장 재구조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

* 母펀드 출자금 1,600억원 + 재무적 투자자 2,400억원(예상)

1. 개 요

- 여신금융협회는 '23.9.26.(화) 업계 자율적으로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「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」 출범식을 개최하였음
- 그간 여전업권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만기연장, 연체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을 추진해왔으나,
- 시장 자율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캐피탈사(9개사)는 신규자금(New Money)을 공급하여 동 지원 펀드를 조성·운영하기로 함

「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」 출범식 개요

- ☑ (일시·장소) '23.9.26.(화) 16:00~17:10, 여신금융협회 11층 대강의실
- ☑ (주요 참석자)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,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협회장, 9개 주요 캐피탈사(신한, 하나, KB, 우리금융, IBK, 메리츠, BNK, NH농협, DGB) 대표이사, 위탁운용사(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) 대표이사

2. 「PF 정상화 지원 펀드」 주요 내용

□ 9개* 캐피탈사가 「PF 정상화 지원 펀드」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총 1,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

* 신한, 하나, KB, 우리금융, IBK, 메리츠, BNK, NH농협, DGB

○ 펀드 출자금(Equity) 1,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(FI)의 2,400억원(예상)을 매칭하여 조성한 자금(4,000억원)을 투자유형별* 하위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직접 투자하여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을 투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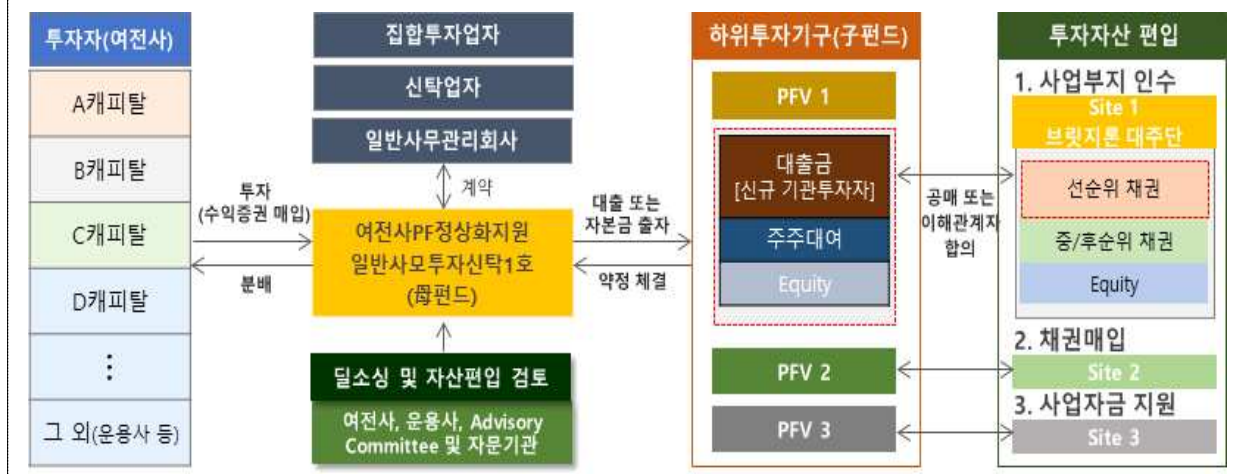
* 사업장 특성에 따라 ① 사업부지 인수 ② 채권매입 ③ 사업자금 지원 등 유형별 투자 실행

□ 펀드운용사(한투리얼에셋운용)의 PF 사업장 선별, 투자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4~6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장별로 약 700~1,000억원을 투입

○ 운용사는 외부 자문기관으로부터 회계·법률 검토 등을 받은 후 현장 실사(due diligence)를 진행

「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」 개요

- (펀드명) 「민간주도 여전사PF 정상화 지원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」
- (투자대상)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PF 사업장
- (투자유형) ① 사업부지 인수 ② 채권매입 ③ 사업자금 지원 등
- (모집금액) 모펀드 약정금액 1,600억원 (Capital Call 방식) + FI 투자금 2,400억원(예상)
- (펀드구조) 모펀드 및 다수의 하위투자기구 또는 직접투자 [펀드 출자+기관투자자(FI) 자금조달]로 구성



3. 기대 효과

- **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**은 민간의 힘으로 자체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, 이번 펀드 조성이 성공사례로 이어지도록 참여자들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힘
- **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**은 정부 지원책에 더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시장 플레이어들이 신규 자금공급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에 나서 준다면, PF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,
 - 부실화 우려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한 투자가 민간투자 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여 투자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
- 금일 출범식에 참석한 **유관기관과 주요 캐피탈사 대표이사**들도 민간 주도의 펀드 설립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,
 - 금번 노력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펀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

4. 향후 계획

- PF 사업장에 대한 투자 타당성 검토 및 민간투자자(재무적 투자자) 모집을 통해 **10월 하순 이후** 「1호 펀드」를 출시할 예정
- 한편,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동 펀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,
 - 금번 여전업권 사례를 여타 금융권역에 전파하여 쏠 금융권으로 확산 되도록 유도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